

한국,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지위 유지

-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중
-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의 체감도 제고 노력 지속

FTSE 러셀(Russell)은 미 동부 표준시 9.28.(목) 17:00(한국시간 9.29.(금) 06:00), 「'23년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서 한국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였다('22.9월 최초 등재).

아울러, FTSE 러셀(Russell)은 한국이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진행상황 및 효과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고, 건설적인 소통을 나누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세계(글로벌) 투자자들과 함께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그간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계획대로 신속·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 "FTSE Russell appreciates the ongoing open and constructive dialogue with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and intends to continue its engagement with all market participants to determine the efficacy of the enhancements as the reforms are implemented. "

첫째, 외국인 국채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23.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각종 신청서에 대한 공식 영문서식 제공 등 투자자 편의 제고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 폐지를 위해 '23.6월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다. 셋째,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통합계좌 개통을 위한 계약체결을 완료('23.8월)하였으며, 국채통합계좌를 내년 상반기 중 개통할 예정이다. 넷째, 최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23.10.4일 시행 예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는 향후 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절차('23.4분기) 및 시범운영 기간('24.상반기)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세계국채지수(WGBI)에 최대한 조기 편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국 국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차질없는 제도개선과 투자자 편의제고 노력을 통한 완전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빠른 지수편입보다도 더욱 중요하다.”는 세계(글로벌) 투자자 의견을 반영하여, 해외 투자설명회(IR) 등을 통해 투자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제도개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고국	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4-215-5130)
	국채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상 (parkjeongsang@korea.kr)

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Announcement (September 2023)

1. Status of Watch List Markets

South Korea

South Korea will remain on the **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Watch List** for the potential reclassification of its **Market Accessibility Level** from 1 to 2, and consideration for inclusion in the **FTSE World Government Bond Index (WGBI)**.

In September 2022, South Korea was placed on the 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Watch List for a potential upgrade to a Market Accessibility Level of 2, and consideration for inclusion in the FTSE WGBI.

During 2023, the South Korean market authorities have undertaken, or are in the process of undertaking, several initiatives intended to improve the structure and accessibility of the South Korean capital markets for international investors. These include:

- Withholding tax (WHT) exemption: effective from 01 January 2023, with clarifications issued in the form of a Frequent Asked Questions (FAQ) document at the end of June 2023.
-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ICSD) Connectivity: the Korean Securities Depository (KSD) signed agreements with two leading ICSDs in late August 2023, with the intention of building connectivity on an omnibus account structure basis, without the need for an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number. The system is expected to start operating by Q2 2024 at the latest.
- Abolishment of the IRC scheme: regulatory approval was passed on 05 June 2023 for the IRC abolishment, with implementation of Legal Entity Identifier (LEI) scheduled for 14 December 2023.
- Foreign Exchange (FX) market reforms: an announcement regarding the enhancement of the FX market was released in early 2023. The planned implementation timetable is H2 2024 after approval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revisions of relevant laws within the current year. Once passed, a six-month pilot period is planned for early 2024.

FTSE Russell has received feedback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WHT reforms continues to progress but remains an area of focus for international investors, in particular, as it relates to the reliance on brokers, rather than custodians, as the collectors of the relevant information. FTSE Russell intends to continue to understand the extent to which the benefits of the WHT reforms are realised by the investment community.

With respect to the announced, but not yet implemented, reforms in the Korean won FX market, FTSE Russell will continue its dialogue with international investors on the impact of these initiatives in contributing to the fulfilment of the FX Market Structure criteria of the 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Framework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ond market.

FTSE Russell appreciates the ongoing open and constructive dialogue with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and intends to continue its engagement with all market participants to determine the efficacy of the enhancements as the reforms are implemented.

참고 2

WGBI 개요 및 편입 요건

- ① **[WGBI 개요]** 총 24개국이 편입된 '세계 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로 런던 거래소 산하 'FTSE Russell*'에서 관리

* FTSE Russell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LSEG)의 자회사로 S&P Dow Jones, MSCI, CRSP와 함께 세계 최대 시장지수(market indices) 산출기관 중 하나

【 WGBI 편입국 현황 】

북미(3)	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14)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핀란드, 폴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시아 등(7)	일본,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중국, 뉴질랜드

- ② **[WGBI 편입 요건]** WGBI 편입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잔액, 신용등급, 시장접근성 세 가지 요건 만족 필요

- (정량조건: 韓 충족) ❶발행잔액 액면가 기준 500억\$ 이상, ❷신용등급이 S&P 기준 A- 이상
- (정성조건: 韓 미충족) 시장접근성 Level.2 (韓 Level.1)

* 시장접근성은 외국인 투자에 불편이 있는지에 대한 FTSE의 주관적 평가 요소
→ 불편이 없는 경우 Lv2, 일부 불편이 있는 경우 Lv1 (Lv2>Lv1>Lv0)

- ③ **[편입절차]** ❶FTSE 협의 거쳐 관찰대상국 포함(매년 3, 9월)
→ ❷6개월이상 검토후 WGBI 편입결정(매년 3, 9월)

- ④ **[최근 사례]** 중국은 '19.3월 관찰대상국 등재후 '21.3월 편입결정(2년 소요), 스위스는 '21.9월 관찰대상국 등재후 현재까지 미편입

	주요 제도개선 추진 현황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12월, 외국인 국채·통안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위한 소득·법인세법 개정 ▶ '23.1월, 외국인 국채·통안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 ▶ '23.3월, 비과세 신청 특례가 적용되는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인정요건 완화(소득·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23.6월, 영문 FAQ 및 가이드라인 배포(국세청) ▶ '23.7월, 비과세 신청서식 등 영문서식 법제화(소득·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12월, 예탁원-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간 MOU 체결 ▶ '23.8월, 예탁원-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간 계약 체결 ▶ '24.상반기, 국채통합계좌 개통 예정
외국인투자자 등록제(IRC)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1월,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발표 ▶ '23.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6개월후 시행) ▶ '23.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 폐지 시행 예정 * Investors Registration Certificate
외환시장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2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발표 ▶ '23.3월, 제3자 외환거래(FX) 가능 여부 명확화(외국환거래규정 유권해석) * 국내은행에 원화 및 외화계좌를 보유한 외국인이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다른 은행과도 외환거래를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 ▶ '23.7월, 제3자 외환거래(FX) 추가 편의제고(외국환거래규정 개정) * 국내은행에 외화계좌 없이 원화계좌만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다른 은행과도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23.10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및 별도 지침(기재부고시) 제정 →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시장 참여 허용 근거 마련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 '24.1월, 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거래 시범운영 (하반기 정식시행 예정)